

생명선교와 목회적 과제

옥방교회를 중심으로

천 정 명(목사, 경북 봉화 옥방교회)

들어가면서

옥방교회는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지난 50년을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다시 맞을 50년을 생각하고 있다. 새누리 공동체 운동도 10년을 맞았다. 작년 5월에는 불이 난 지 3년 만에 어렵게 예배당을 지어 봉헌하였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 가지 정도로 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생활, 선교이다. 이번에 50주년을 맞으면서, 옥방교회의 비전2051로 제시되었다.¹⁾ 이번에 옥방교회가 해온 생명선교를 되돌아 보고, 생명 2051을 통하여 생명선교적인 과제를 어떻게 담당해야할 지를 그려보는 기회가 될 것 같다.

1) 옥방교회 생명 2051(Life 2051): 본래는 비전 2051(Vision 2051)로 제시되었던 것인데, 생명 2051로 바꾸어 보았다. 바꾸어도 별 차이는 없다. 우리의 비전은 생명운동이자 생존운동이기 때문이다.

1. 생명 공동체

1) 생태 마을 만들기

옥방 마을을 자연에 가까운 마을로 만드는 일이다. 물질의 순환을 통하여 생태계를 회복시키면서도, 삶에 필요한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서 자립 가능한 마을로 만드는 것이다.

생명운동은 우리에게서 절박한 생존운동이었다. 중석 광산촌이었던 옥방은 1980년대 초에 폐광촌이 되었다. 교회의 자립과 교회 식구들의 생존을 위하여 1985년에 협동 운동을 시작하였다. 교인들 대다수가 광산에서 생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절박한 과제였다. 그들이 광업에서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이 되는 땅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땅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생존을 위해서 협동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 농법과 자연산 닭과 돼지치기를 하기도 하였다. 코카콜라로 대변되는 다국적기업이 생산한 청량음료를 대체하고, 참된 마실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솔잎효소를 연구, 생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공동체와 소비자 단체에 공급을 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91년에 영주에서 새누리공동체를 창립하고, 1994년에는 새누리 생활협동조합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생명 운동과 공동체 운동을 계속하여 왔다. 설교, 세미나, 탐방 또는 모임과 이야기의 주제는 늘 생명과 공동체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옥방교회에서는 생명운동에 대한 특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많은 분들이 옥방교회와 같이 생명운동을 해 온 교회에서는 뭔가 특별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쓰고 있는 글을 부탁받은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된다.

농촌교회가 거의 그렇듯이 옥방교회에서도 특별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공동식사를 하자마자, 교인들이 대부분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정상적인 활동 및 모임조차도 잘 이루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활동 및 프로그램이 갖는 한계성 때문이다. 모여서 신나게 이야기할 때는 모두 실천할 것 같지만, 흩어지면 여전히 그대로이다. 약간의 개인적인 실천 차원에만 머무르고, 공동체나 마을 차원에까지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교육과 활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공동체나 마을 차원에까지 이르는 생명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생태마을 만들기를 그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

(1) 생태마을 타당성 알아보기

1999년과 2000년도 여름에 서울 대치동교회 대학, 청년부가 봉사활동을 옥방교회에서 하였다. 당시 부장으로 양병이 장로(생태산촌 만들기 회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함께 참여하였다. 옥방의 자연 환경과 공동체 운동과 생태마을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것은 우선 옥방의 자연 환경 조건이 너무 좋고, 생명운동과 공동체를 통하여 길러진 일꾼들이 있고, 다른 농촌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

(2) 생태마을 부지 확보

옥방은 내(川)를 사이에 두고 봉화군과 울진군이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마을 전체의 합의와 행정적인 지원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마을 전체에 대한 계획은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추진 가능한 일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교회가 있는 봉화군 쪽에 확보된 교회 부지(3,400평)를 이용하여 부분적인 생태마을 만들기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3) 생태적인 집짓기 기술 축적

생태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하다. 널리 알려진 충남 홍성군 문당리 생태마을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생태계 회복과 보전,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생태적인 주택 건축, 농촌의 교육 및 문화 복지 환경의 향상 등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생태적인 주택 건축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것이다.

1997년 2월에 교회에 불이 나면서,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되었다. 예배당을 자연 환경에 어울리게 통나무 또는 목조로 짓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그 해 10월에 교인 가운데 두 사람을 건축학교에 보냈다. 그 후에 땅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 건축이 미루어졌다. 불이 난 예배당 부지도 교회 땅이 아니라, 거성광업소 소유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2년 반이나 끌어오다가 1999년 9월에 대지 3,400평을 거성광업소로부터 인수하게 되었다. 봉화군 쪽 마을의 절반 이상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해 10월부터 건축일꾼 2명의 시공과 지도, 목회자를 비롯한 전 교인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6개월에 걸쳐 건축을 하게 되었다.²⁾

지금은 작년 말부터 교회 뒤쪽에 있는 옛 광산합숙소(45평)를 재건축(리모델링)하고 있다.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의 생태건축은 아니다. 이번에는 외장을 외국산에서 국내산 낙엽송으로 바꾸어 썼다. 낙엽송 가운데 속이 붉은 것을 쓰니, 수입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아직 단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쓰기도 하고, 일부는 흙과 나무를 쓰기도 했다. 앞으로 완전한 생태건축을 위하여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보려고 한다.

(4) 생태산촌만들기(사) 참여 및 연대계획

2) 건축에 대한 것은 『농촌과목회』 2000년 여름호(제6권)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생태산촌을 만드는 모임이 있다. 이 모임에 교인 중 몇 사람과 함께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각종 정보를 얻고, 교류를 하고 있다. 이 단체와 봉화군과 함께 옥방마을을 생태산촌으로 만드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2) 환경농업 마을 만들기

옥방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옥방공동체와 한살림 방주공동체가 있다. 두 공동체가 연대하여, 옥방을 환경 마을 또는 유기농 마을로 만들어 내외에 선포하는 일도 계획하고 있다. 아직 정식으로 논의된 적은 없지만 환경공부 모임을 통하여 이를 계속 제기하고 추진하려고 한다.

지난해 8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교회에서 ‘환경과 공동체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에 대한 책을 읽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임을 통해서, 마을 안에서 차 타고 다니지 않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다가 교회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장소를 마을 회관으로 옮겨서 올해 2월에 매주 한 번씩 저녁 모임을 네 번 가졌다. 지금은 농번기라서 모임을 쉬고 있다. 이런 모임을 통하여 마을을 환경농업 마을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환경과 공동체를 위한 모임 (예)

때 : 2000년 11월 12일 오후 1:30

곳 : 옥방교회

목적 : 옥방, 쌍전, 남회룡 마을 식구들이 지역에서 환경과 공동체 운동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모임입니다. 더 잘 알기 위하여 연구하고, 뜻이 같도록 토론하고, 함께 가도록 실천하는 일을 합니다.

진행 : 책 읽고 나누기: 지구대예측 “제4장 파국을 피하기 위하여”/ 생활 나누기

알림: 지난주에는 박찬득 님 댁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넓지

도 비좁지도 않은 마루에서 차를 마시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 후에는 손병선 님의 그 유명한 비닐하우스 집에서 입에는 쓰나 몸에 좋은 오가피차와 야콘을 들면서 집 구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토론의 사례이다.

때 : 2000. 10. 29(일) 오후 1시 30분

곳 : 옥방교회

참석자 : 천정명 김영숙 황천호 남추자 이응창 천민애 신정숙
박찬득 배동분 차기영 손병선 손경민

동네이장: 지난주에 명지대에 농산물을 가지고 갔었다. 농산물이 싸다고 알리는 학생에게 우리가 이 장터를 열게 된 목적에 대하여 설명했다. 농산물은 농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다. 싸게 많이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환경을 살리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장터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학생의 입은 옷 뒤에 “이끌 것인가, 이끌려 갈 것인가”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 그 때 우리 각자가 이끌려 가는 삶이 아니라, 이끄는 삶이어야 한다고 느꼈다.

반장대행: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모두 분류하여 마대자루에 넣어 쓰레기 수거장소로 가져가다, 동네 어른을 만났다. 뭐냐고 물으시기에 설명을 했더니, “쓰레기를 뭐 하러 내다 놓는가? 땅에 물어버리지.” 라고 하셨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 동네 분들 생각인데 누구 하나 앞장서서 계몽하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

진 북: 사람들은 비만 오면, 쓰레기를 개울이나 강에 내다 버린다. 그것이 결국 바다로 모이지만, 바다는 쓰레기를 수용하지 않고 바닷가로 밀어낸다. 결국 공무원들이 사람을 동원해 수거한다. 결국 사람이 버리고 사람이 수거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진료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도 감기에 걸리면, 쉬어

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병을 부른다. 결국 인간이 욕심이 많아 쉬지 못해 병이 온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고 인간도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꿈꾸는 소피아 : 얼마 전에 농업용 전기를 신청했는데, 설치 회사가 계속 약속을 어겼다. 여러 번 기다리다 결국 화를 냈다. 아무리 농사짓는 사람이라도 시간을 매우 귀하게 생각한다. 약속시간을 맞추기 위해 멀리 나갔다가도 돌아와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이 여러 번 약속을 어긴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만일 신청자가 농부가 아니라, 어느 기관이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러했을까를 생각하니, 무척 불쾌했다. 농부라는 신분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더욱 그 신분을 빛내기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썼다. 이하는 즐인다)

(2) 도·농 교류의 활성화

소비자를 찾아가기

생태마을은 도·농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새누리공동체는 영락교회와 1994년부터 직거래를 해왔다. 그렇지만,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매할 데가 없는 농촌교회와 공동체가 거의 대다수이다.

현재 하고 있는 새누리공동체의 직거래 과정을 살펴보자. 영락교회에서는 금요 구역장 권찰 공부 시간에 농산물을 판매한다. 한 주간 내내 목요일부터 공동체 공급 담당자가 먼 거리에 있는 생산자의 농산물을 모아온다. 생산자들이 예천이나 의성, 안동, 울진에 걸쳐 있다. 전에는 하루 전에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영주에서 새벽 2시에 출발한다. 새벽 6시경에 도착하여, 물품을 차에서 내린다. 천막과 탁자를 펴놓고, 내린 물품을 판매하기 쉽게 정리한다. 오전 9시경에 제2여전도회 임원과 지회장이 나오면, 함께 물품 정리를 한다. 오전 11시에 있는 공부 시간을 제외하고 물품을 판매한다. 물품이 거의 판매된 오후 2

시쯤에는 물품을 다시 정리하고, 포장 상자나 박스를 차에 싣고 천막과 탁자를 거두어 제자리에 넣어두고 배달할 물건(교역자 사택)을 배달하고 바닥을 쓸어 청소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소비자가 찾아오기

그래도 새누리공동체는 영락교회와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다른 공동체와 농촌 교회와 비교해 보면 행복한 일이다. 그렇지만, 수년간 해 오면서 더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지금은 상당히 정착하였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 현장을 탐방한 임원과 지회장들은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든지 찾아와서 농사짓는 곳을 직접 둘러보고, 노동봉사도 하게 하면,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자기 눈으로 농산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하여 교회에 작은 판매점을 마련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 예약 주문을 원할 때는 그 방법을 알려준다.

교회를 통한 직거래 외에도 옥방 지역 출신 향우회를 중심으로 고향 방문을 추진한다. 작년 6월 초에 재경(在京)옥방향우회원들이 고향을 방문하여 소 한 마리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노래방 기기도 기증하였다. 옥방은 꽤 유명한 광산촌이었기 때문에 옥방 출신들이 전국에 걸쳐 있다. 그들을 연결시켜 지역 농산물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올해 그들과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가 찾아오려면,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요즘 녹색관광(Green Tour)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생태마을은 먼저 그곳에 사는 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과 친숙한 만남을 위한 것이다.

2. 생활 공동체

1) 유기농적인 삶과 마실 운동

생태마을과 더불어 생활공동체 만들기를 하려고 한다. 지금은 공동체라고 하지만 생산 공동체 즉 작목반 수준의 공동체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수준으로는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그저 꿈일 뿐이다.

공동체는 가진 자와 있는 자는 하기 어렵다. 자기 것에 대한 포기나 나눔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약자와 소외된 자들은 뭉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를 이룰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들은 더욱 그렇다. 우리 교회에도 장애인이 많다. 뇌성마비 장애아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한 하지 장애인도 있다. 내 아내도 10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인 등록만 안한 장애인이다. 농촌 장애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장애인이 함께 할 때에라야 가능하다. 그리고 노인들의 문제도 있다. 생계를 해결하기에도 어려운데 장애인과 소외된 이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지금의 공동체 수준으로는 더불어 산다는 것은 빈 말일뿐이다. 유기농은 돈을 벌거나 안정적인 소비와 향락 생활을 위한 또 다른 생산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유기농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새 차와 새 집을 마련하거나 도시에 아파트라도 마련하여 아이를 거기로 내보낼 일을 계획하게 된다. 또 다방이나 술집 출입이 잦아진다. 지금은 방구석에서 고스톱 치지만 정선 카지노 장을 들락날락 하게 될 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정선 카지노 장은 우리 지역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현재의 삶은 유기농적인 삶과 거리가 멀다. 유기농을 하면 삶도 유기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유기농을 하는 사람이 소비와 향락적인 삶을 살수가 없다. 우리 지역에도 귀농한 이들이 많다. 그런데 그들도 유기농을 하러 들어왔지만 생활 방식은 여전히 도시의 대량 소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기 힘에 부칠 정도로 규모를 크게 하다가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다. 유기농적인 삶은 많이 벌어들여 많이 먹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적게 먹고 적게 쓰는(쓰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 생활과 생산은 개인이 하고 일은 가끔 품앗이로 하고 유통은 함께 하는 현재의 작목반 형태의 공동체로서는 한계를 느낀다. 생산과 소유도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취지를 지난 4월 29일 교회주보에 실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실운동은 아름다운 우리 전통 마실돌이를 생각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즐기며 사는 공동체운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16년 동안 생산공동체운동과 도·농 직거래운동을 해 왔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발전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여전히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되다가는 그 틀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옥방교회가 지향하는 크리스천 공동체를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기농업을 하거나 공동체운동을 하거나 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생산에만 매달려 있어서 더 공동체다운 공동체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고 사람과 서로 어울리고 삶을 즐기는 것은 현재 이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농촌생활에서 자녀 교육, 주거, 건강, 노후를 개인이 해결하기 위해 한 평생을 보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산기반이 있어야 하고 생산을 위하여 고되게 일해야 합니다.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와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의 굴레에 썩워 사람다운 삶을 살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을 돌아볼 틈도 없습니다. 일에 지쳐 일상생활마저 짜증스럽습니다.

우리 옥방과 같은 농촌에서도 인간다운 삶, 노동에서 해방된 삶,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누가 가

저다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권리입니다.

지난 50주년 초청음악회를 열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찍다보면 참석한 이들의 얼굴 표정을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문화적인 것에 갈급해 하고, 그것들에게 대하여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선구자 노래가 나왔을 때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양을 할 때 기도하듯이 두 손을 모으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해질 무렵에 교회 앞 흔들의자에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까? 저는 키부츠 계짤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라고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삶을 나누고, 살림을 함께 살아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을 통합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밥도 같이 먹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뜻 있는 이들이 이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은 그저 밥 한 그릇 먹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가능성에 희망을 두고 모이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2) 생활공동체 모임

생활공동체(마실)를 위한 모임에 5가족이 참여하고 있다. 어린이 6명, 어른 7명이다. 지금까지 8번 모임을 가졌다.

함께 한 끼라도 밥을 먹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키부츠 계짤에서 느꼈다. 키부츠 초기에 그들은 공동식사를 하고, 저녁 내내 서로 그 날에 한 일, 내일 할 일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오스만 터키가 통치하던 시절, 그들은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돌아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했다. 심지어 등불이 바람에 흔들려 꺼져서 캄캄해졌을 때에도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그런데 벌써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네 가족이 돌아가면서 준비하는데, 이것조차 부담스럽다고 한다. 정말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솔직히 지금은 내가 하는 일에 억지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왜 힘들고, 험한 일을 사서 하는가? 쉽게 목회를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힘들게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중얼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생활공동체 모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 : 매주일 저녁

곳 : 봉사관

모임시간과 순서 :

오후 6:00-6:50 즐거운 영어출발(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진행 : 천정명 목사) 노래로 배우는 영어 *Let's Chant, Let's Sing!*

오후 7:00-7:20 기도회(시편 읽기, 기도하기)

7:20- 저녁, 차 그리고 이야기(주제에 따라서/다음 주 6월 3일에는 공동체와 건강에 대하여 손병선 선생이 이야기를 하기로 함)

생활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적 영성과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 비기독교인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독교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귀농하여 공동체적 삶을 원하는 도시 크리스천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앞으로 옥방과 같은 농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 마을에 올해 들어서만 여덟 집에서 초상이 났다. 앞으로 이런 현상

은 가속화 될 것이다. 마을에 주민이 줄어들면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생태마을을 만드는 목적 가운데 하나도 도시민들의 귀농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에 있다. 30-40대 젊은 가족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초등학교 폐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고 그들이 가진 달란트를 이용한다면 아이들을 위한 공동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예능 분야나 어학, 컴퓨터에 밝은 이들이 들어온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마을의 교육과 정보 인프라 구축을 훨씬 앞당기게 될 것이다.

3. 선교 공동체

생태마을과 생활공동체 운동을 통하여 주민과 더욱 밀착한다. 공동체적 삶과 말씀을 통하여 지역 농민을 선교한다. 그리고, 생명운동을 통한 공동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교회와 공동체를 돕는다. 생명운동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하는 일을 통하여 생산 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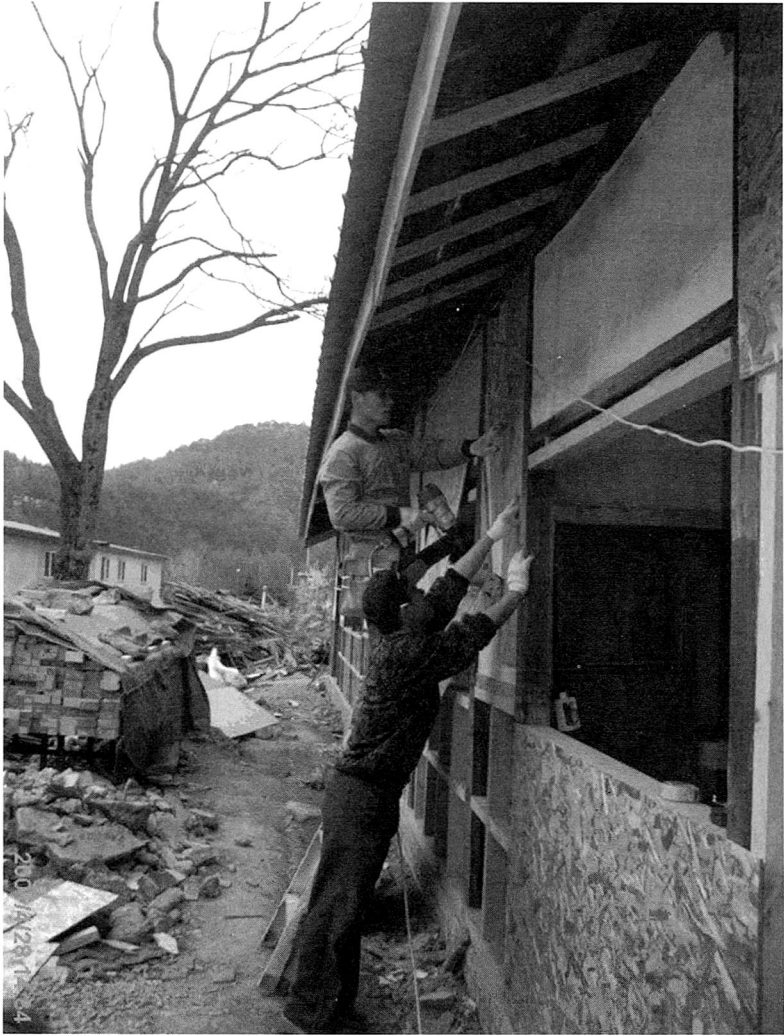
나아가 생명운동과 공동체에 대한 경험을 제3세계 농민 및 공동체와 나누도록 한다. 선교사들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적, 물질 교류를 나누도록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선교센터(이규대 선교사)와 중국에서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는 김○○ 선교사와 교류를 모색하고 있다.

마치면서

지난 5.27(일) 저녁에 가진 생활공동체 모임에서 필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 운동을 우리의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생명 운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지구적이니, 전국가적이니 하는, 거창한 것은 잘 모른다. 다만 옥방교회로써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

으로도 그럴 것이다. 생명운동은 바로 우리 옥방교회의 생존운동이다. 이 생명운동을 통한 생존운동은 우리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생활관 건축시 외장합판을 붙이기 위해 못을 치고 있다.